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민 체감 의정 펼쳐

지난 한 해 동안 정읍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을 목표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운영하며 조례안 114건 승인·동의안 54건, 건의·결의안 13건 등 총 19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조례를 적극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해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미래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이에, 2025년도 정읍시의회 의정활동을 각 위원회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의회운영 구축"

의회운영위원회(최재기 위원장, 황해숙 부위원장 김승범·이복형·고경운·이도형·송기순·오승현 의원)는 지난 1년간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신 정책 흐름과 의회 운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 교육에 적극 참여했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했다.

이러한 역량 기반으로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회 운영의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논의될 수 있는 소통의 틀을 마련했다. 또한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 홍보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열린 의회 구현에 기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인구감소 대응과 돌봄 강화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자치행정위원회(김석찬 위원장, 오승현 부위원장 김승범·이복형·황해숙·이만재·한선미·고성환 의원)는 지난해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양육과 결혼, 노후 돌봄까지 아우르는 정책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년층의 결혼·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아울러,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도 적극 나섰다.

▲경제산업위원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안전한 정주 여건 강화"

경제산업위원회(오병제 위원장, 송기순 부위원장 고경운·이도형·이상길·정상철·최재기·서향경 의원)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송전선로 등 대책 특위

시민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
홍보 체계 정립... 열린의회 구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기반 마련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목표로 활동
송전선로 등 인한 안전문제 대응도

를 펼쳐왔다.

위원회는 연중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내장산자연휴양림과 국가유산미디어아트관 등의 주요 사업 현장의 운영 실태와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 소성면 산불과 관련해 신속한 현장 점검과 관련 지원 법규를 제정해 피해 구제



정읍시의회 본회의장

▶ 박일 의장

"시민과 소통하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

박일 의장은 '시민이 곧 의회의 주인'이라는 신념 아래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 운영을 통해 정읍시의회를 이끌어 왔다.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의 뜻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전체의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견제와 건설적인 협력을 병행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썼다.



에 앞장섰다. 아울러,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등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회복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책임있는 예산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승범 위원장 오승현 부위원장 이복형·황해숙·이도형·이상길·송기순·오병제 의원)는 지난해 12월 15일 마무리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7개 사업의 28억2,074만원을 삭감하고, 4개 사업에 8.92

만원을 증액한 총 1조2,348억2,638만원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역 성장 기반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했다. 최근 지급 결정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하여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산을 반영하며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탰다.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시민의 건강, 정읍의 환경을 위한 정책 대응"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이상길 위원장, 황해숙 부위원장, 고경운·정상철·최재기·오승현·한선미·고성환 의원)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로

▶ 이만재 부의장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 지방자치 실현"



이만재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에 힘써 왔다. 특히 의원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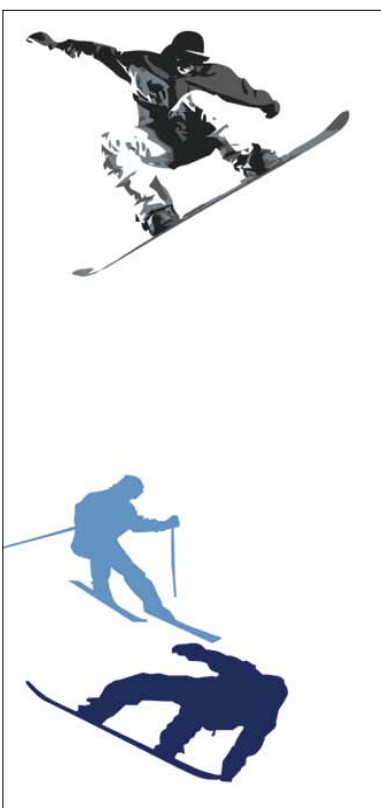
아울러, 의원 교육 확대 등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의정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정책 수립과 시민 서비스 향상,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인한 환경 피해 및 주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간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관계부서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면밀히 점검하며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과 쟁점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북자치도의 어떠한 형태의 허가기간 연장이나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2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026년 1월 8일(목)~1월 9일(금)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북특별자치도스키협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

